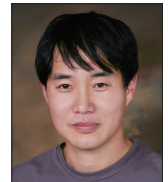




보기에 참 좋더라!



최종욱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t@hanmail.net

성경 창세기편에 보면 신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보기에 참 좋더라!’란 말씀을 남기신다. 너무 문장이 단순해서 오히려 그저 흘러들던 이 말이 수의사가 된 어느 날부터 무척 가슴속에 깨달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행(行)해서 결과가 내 보기 좋다면 그거 이상 무얼 더 바라겠는가!

나 역시 동물들 치료하다보면 간간히 입에 미소도 머금어지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순간도 많다. 그리고 그 맛 때문에 이 직업을 좋아한다. 세인트버나드 개가 장염에 걸려 진

료실로 들어왔다. 그 크고 명량한 개가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이 파보바이러스성 장염은 초기 3~4일간이 고비이고 이때만 넘기면 급속히 회복기에 접어든다. 그 고비동안 주인과 수의사는 온통 냄새나는 구토물과 피비린내 나는 설사변 속에서 계속 죽음과 사투를 벌려야 한다. 나의 무기는 끊임없이 몸 안에서 입(구토)과 항문(설사)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는 수분과 전해질을 몸에 다시 채워 넣기 위해 링거액을 혈관이 해지도록 계속 집어넣는 것이고, 개의 무기는 병을 이겨내려는 끈질긴 삶의 의지와 기초 체력이다. 그렇게 4일 정도 지난 어느 날, 그 날도 진료하다 지쳐 쓰러져



있는데, 순간 갑자기 개가 물그릇을 찾아 '홀썩!'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회복되는 첫 신호음이다. 이 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듣기 좋았다.

소가 전위증에 걸렸다. 이 병은 소가 가진 네 개의 위 중에서 마지막 위인 제4위에 발효가스가 차서 떠오르면 커다란 제1위가 복벽으로 4위를 몰아서 움푹달싹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버리는 병이다. 그러면 음식물이 장으로의 흐름이 거의 막혀버린다. 그럼 음식물 소통이 안돼서 소는 전혀 먹지를 못하고 먹이 앞에서 입맛만 다시면서 점점 말라가고 눈이 속들어가간다. 진단은 간단하다. 소의 뱃가죽에 청진기를 대고 손가락으로 통통 튕기며 "핑, 핑!" 하는 날카로운 가스 찬 핑 사운드를 듣는 것이다. 진단이 내려지면 즉시 소의 옆구리를 손이 들어갈 정도로 작게 절개하여 부풀은 4위에 직접 주사바늘을 꽂는다. 그러면 "피시식"하고 바람이 빠지면서 위는 제 위치를 스스로 찾게 되고 소는 즉시 풀을 우걱우걱 씹기 시작한다. 목장에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속마다 다 후련해져 옴을 느꼈다.

소가 난산에 걸렸다. 자정부터 새벽까지 혼자서 자궁 안에 손을 넣어 어렵사리 송아지 자세를 겨우 교정하고 나서야 잠자는 여러 사람들을 깨웠다. 그리고 모두 힘을 합쳐 송아지 다리를 끌어 당겨서 드디어 송아지가 암소의 몸에서



스르륵하고 빠져 나오면서 "음매" 하고 큰 소리로 우는 그 순간, 비록 온 몸이 소풍과 양수로 얼룩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다.

멀리서 마취시켜 데려온 표범이 15일 동안의 긴 단식을 풀고 드디어 소고기를 게걸스레 먹기 시작했다. 거의 반년 이상을 먹지 않던 아나콘다가 따뜻한 온탕 목욕탕을 만들어 주었더니 한참 온욕을 한 후 마침내 산 닭을 감고 조이기 시작했다. 어렵게 데려온 기린 한 쌍이 서로 소 닭 보듯 하더니 드디어 춘정이 동했는지 수컷이 암컷 등에 올라타기를 시도 하고 있었다. 강아지가 갓 태

어났는데 거의 미동을 하지 않기에 입 안 가득 강아지 코를 물고 양수를 쪽 빨아냈더니 "깨깹" 하는 소리와 함께 발그레하니 살아났다. 한차례 전염병이 돌아 죽어가던 닭들의 죽음의 행렬이 서서히 멈추어섰다. 마취약 과다로 쓰러진 사슴을 다들 포기하고 바라보는 데 10분 동안 온 힘을 다해 심장마사지를 시도 했더니 마침내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팍 팍!" 악만 쓰던 앵무새가 어느 날 내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 왔다. 사람을 피하던 침팬지에게 날

마다 혼자 가서 철창 앞에서 독백처럼 말을 건넸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며 아는 체를 하기 시작했다. 비록 지나가는 짧은 순간이나마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너무나 보기 좋다. ♡

